

재외국민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형주연*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국문 요약

이 연구는 재외국민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을 막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학교 적응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학교 적응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학생 본인의 자아존중감 차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고 친구 관계에 따른 원인도 있을 것이라 전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적응 능력을 학습효과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겠다.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TCK가 원래 지닌 자아존중감의 높낮이가 프로그램의 결과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겠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간에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 변화를 통한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도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바탕으로 자아 존중감(Self-esteem)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학생들이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부적응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재외국민특례입학, 부적응, 상담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1. 서론

외국에서 오랜 기간 학습 활동을 마치고 한국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학생들과 제3문화 환경을 지닌 학생들이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데 있어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외국민 입학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대학생의 하위집단인 재외국민 입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많지 않다. 하지만 입학 후 자퇴를 문의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보고 되고 있다. 대학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을 나타내는 자긍심 및 삶의 만족도, 그리고 대학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이들 재외국민 입학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상용화하고자 한다.

30여 명의 재외국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먼저 조사한 후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 했을 경우 적응하는 반응 속도와 만족도에 대한 결과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목적을 둔다. 학습 스트레스와 학교 스트레스 친구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스트레스로 쌓여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게 재외국민 입학 대학생들에게 상담 프로그램으로 이용하여 적응의 기회를 강화하고 학생 본인의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원인에 에 친구 관계와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생의 급감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재외국민 입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이탈을 막고 대학에 잘 정착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 주저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0707jy@kakao.com

** 교신저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9252279@hanmail.net

II. 연구 배경

2.1. 부적응 학생들과 상담 프로그램

재외국민 전형 입학 대학생의 한국에서의 대학 부적응의 원인으로는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바라보는 한국 학생들의 시선이 가장 크다. 외국에서 쉽게 공부하고 입학했다고 비판하거나 부모의 신분 또는 지위, 권력, 부에 편승한 특례입학 자격의 부여라고 믿는다(이은규, 1995) 자격요건상의 기준 불합리성과 외국 교육제도와 수혜자격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에서 비롯된다. 또한 학생 자신이 자란 환경과 다른 문화를 접할 경우, 인간은 자신의 문화양식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인해 역할갈등(role conflict)을 경험한다. 대표적으로 타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는 타국의 문화변용 과업 수행에 따른 갈등, 즉 문화 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를 경험한다(김준범, 2018).

한국 학생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더라도 문화를 수용하는 방식이나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부적응(maladjustment)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 중에서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전개되는 과도기로서 심리적인 변화를 수반하여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는 중요한 시기에(김영숙, 2016) 다른 문화권에 머물렀던 학생들은 타국 학교생활에 바로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시기에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실현 요소의 결핍으로 실존적 좌절이 학교생활 부적응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면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행동과 현실 도피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들의 행동은 대체로 보통 청소년보다 심리적인 갈등과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이들은 낮은 자존감과 자기비하적인 태도, 그리고 친구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그로 인한 학습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적응 문제를 감소 시키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12회기에 걸쳐 적용하고 종속변수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사전 사후 실험을 통해 결과 차이를 기대하며 연구를 진행한다.

학교 부적응의 문제는 적응과 비교되어 이해한다. 적응은 생활체조와 환경 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욕구의 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 과정이다(송명자, 2008). 부적응이란 여러 가지 부적응의 행동 특성들이 학교라는 생활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문제는 청소년이 학교 및 학급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적합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전술했다(김충렬, 2014). 이에 따라 재외국민 입학대학생들은 학교 및 학습 사회에서 학교의 교육적 가치, 질서 그리고 규범의 일치라는 옳은 행동을 못 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행동양식이 불균형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 부적응이란 청소년의 다양한 부적응 행동의 특성들이 학교생활이라는 하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 부적응이란 개인이 학교생활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서 개인의 욕구, 감정, 사상 등이 학교의 규칙, 규범에 용납되지 못하여 학교 내에서 개인이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적응 원인을 밝히고 부적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적응도를 높일 방안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재외국민 전형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2.2. 학교 적응

적응은 환경을 개인의 실정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학교 적응의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크게 가정, 학교, 사회로 볼 때 학교에서 학생들이 받는 교육적 총체를 통틀어 학교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장휘숙, 2009) 학교생활 적응의 개념에서는 학교의 교육적 상황에서의 적응의 개념을 지적, 도덕적 성장을 위해 교육적 과정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적응이란 개인의 성격, 경험, 지지 체계, 학교의 지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어떤 학생들은 환경에 적응하여 긍정적인 학교 경험을 쌓을 수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생활 적응은 학습자가 학교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일련의 어떤 노력으로서, 학습자가 자신의 요구를 학교 안에서 현실적 가능성에 맞추어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도전으로 규제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숙영, 1998). 이로써 적응이란 청소년이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며, 학교 수업의 능동적이고 학교 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

로 볼 수 있다. 학교적응의 문제를 조사하고, 재외국민 입학 학생들의 대한 적응을 위한 어떤 노력의 기제, 성격의 관련성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은 통념적인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과 연구를 통한 객관성이 내포된 자료를 얻을 수 있음에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2.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감정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사티어(V. Satir) 이론의 핵심적 개념으로 자신에게 가지는 애착, 존중, 사랑, 신뢰를 느끼는 기본욕구이며 이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며, 자기에게 긍정적인 자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관리, 문제 해결, 대인 관계 형성 등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의 증가는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야기 시키며, 이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은 학교에 대한 적대감이나 공포감, 경쟁의식 및 실패감이 누적되어, 또 다른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김경옥, 2006).

자아존중감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도 상호 존중과 긍정적인 대화를 끌어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대한 책임감과 자기 계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다.

자아존중감은 어린 시기부터 형성되며, 가정, 교육환경, 사회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경험과 영향을 통해 발전합니다. 자아존중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자아 대화를 가지며,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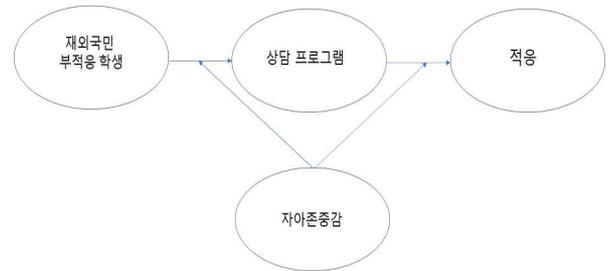
이런 자아존중감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프로그램 적용시 본 연구에서 적응에 대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다문화가정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 부적응 문제가 다양하게 다뤄졌지만 재외국민입학생들의 대학생활 부적응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다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대학에서는 쉽게 자퇴하거나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해외나 제3국으로 나가는 결정을 하는데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많은 재외국민 학생들을 유입하여 안정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 시킬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상용화를 제안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본다.

또한 적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타나내는지 확인하고자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재외국민 부적응 학생에게 상담 프로그램은 다시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상담 프로그램은 학교 자퇴율을 낮출 것이다.

가설 3: 재외국민 부적응 입학학생에게 적용하는 상담 프로그램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상담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 하여 적응력이 높을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다수준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한 재외국민 학생들이며, 자신들이 학업했던 해외나 제3국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상담 경험이 있거나 이주 계획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주요 변인으로는 독립변인으로 학교 부적응(수업 관련, 생활지도,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 교수와의 관계, 학점 관리, TCK 대우, 사회적 인식 등)와 소외감(차별, 인권침해 사례 등)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상담프로그램이고 종속변인으로는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다. 매개변인은 자아존중감이다. 특히 스트레스 요인 중 가장 비중 있는 학교 부적응 요인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한다. 참여한 학생들 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다. 그리고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른 3단계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적용하여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외국민 학생들의 학교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적용 및 상용화 제안 및 적용함으로써 재외국민 입학학생들을 정착시키고 그들의 정신건강 위한 유의미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강보미·강유빈·고미영·김찬송·남의정·박소은·박정연·백도윤·이혜린·한보혜·신주현·손지희(2019). 한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대학생의 문화지능과 학습참여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간호학회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고지희·김경태(2004). *사회 부적응 집단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 학교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지도 프로그램 운영*. 장안대학교, *학술저널*, 261-303.

김미정·이혜승·우현석(2011). 재외국민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학교 생활 만족도와 글쓰기 점수와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 통계상담. *학술저널*, 12-41.

김준호(2014).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김중범(2009).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to teenagers' maladjustment at school life"- The main focus on maladjustment teenagers,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

회사업연구, 학술저널, 25-48.

김중범·박성훈(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의 중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chool mal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y*,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교사회복지, 77-100.

노충래(2002). 재외국민특례입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자긍심, 삶의 만족도 및 대학환경인식의 관계와 서비스욕구를 중심으로 Focusing on Relationships among Stress, Perception of University Environment,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Service Needs = A Study on University Adjustment among Returnees of Overseas-Experienced Students, *한국정신보건 사회산업학회*, 94-96, 101-110.

안은지(2020). *재외국민 특례입학생의 한국어 효능감과 대학생 활적응에서 역문화 충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 =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Reverse Culture Shock and Internalized Sham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Efficacy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Returning Overseas Koreans*,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경신(2022). *재외국민 대학생의 학업적 어려움과 문식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현주(2011).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의 및 자기조절능력 향상의 효과 검증 =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Art Therapy to Maladjusted Adolescents in School life on School life Adjustment and Self-Regulation Ability*,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학술저널, 31-60.

이혜경·김현주(2007).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관한 연구항 분석,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청소년시설환경*, 29-42.

이유신·김한성(2014).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 생활부적응: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School Maladjustment among Immigrant Children and Youth: Focusing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from Teachers*,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교사회복지*, 263-282.

정장희(2016). *재외국민의 귀국 재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 귀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문헌대학원.

Bsez, T.·Dennis, J. M.·Crano, W. D.·Stacy, A. W.·Unger & J. B.(2014). *Measuring Acculturation Gap Conflicts Among Hispanics: Implications for Psycho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SAGE PUBLICATIONS LTD*, *Jo urnal of family issues*, 1727-1753.

Kwon, Munho. Park., Jongseok·Choi & Ho-Meoyng.(2019). *Study of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n Overseas Field Research*, *Korean Physical Society*, 273-282.

RIGGIO, H. R. & VALENZUELA, A. M.(2011).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divorce,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among*

- Latino-American young adults*, Blackwell Publishing Ltd. *Personal Relationships*, 392-409.
- Leach, Erica., & Gore, Jonathan.(2022). *SCOPUSCulture, religion,and homonegativity: a multi-level analysis*, Taylor & Francis, *Mental health, religion culture*, 85-98.
- Marquez, Jose.(2022). *Does school impact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differently for students of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 A comparative study in 33 countries*, Taylor & Francis, *Education inquiry*, 412-427.
- McNicoll, P., & Christensen, C. P.(1996). *The Bridging Model in Action: The Experience of the Multicultural Famil Centre*, THE HAWORTH PRESS, INC. *JOURNAL OF SOCIAL WORK*, 7-26.
- Nolasco, Nicole(2016). *Investigating Family Histories, Teaching Children of Diverse Backgrounds, and Forging Personal Relationships Across Lines of Race and Culture: A "Novel" Perspective in Multicultural Education*, Taylor & Francis, *Multicultural perspectives*, 54-56.
- Yao, Y. S., Chang, W. W., Jin, Y. L., Chen, Y., He, L. P. & Zhang, L.(2014). *Life satisfaction, coping, self-esteem and suicide ideation in Chines adolescents: a schoolstudy*,Blackwell Publishing Ltd,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747-752.